

제16회 전국 화장실 심포지움(일본) & 제1회 아시아 태평양 화장실 네트워크 회의 특별강연(II)

협의회 회장 심재덕(수원시장)

본 내용은 지난 11월 9일부터 3일간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市)에서 있었던 특별강연 내용으로,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연설 전문을 파워포인트(POWER POINT) 내용만 줄여서 3회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편집부

II. 한국의 월드컵 준비와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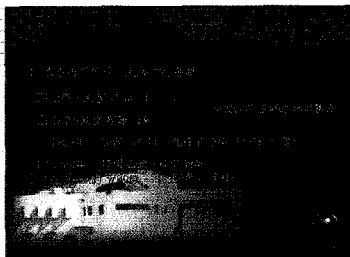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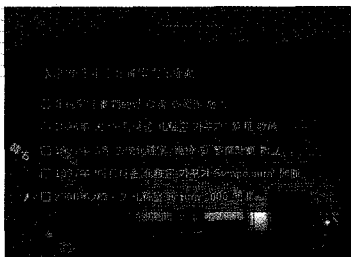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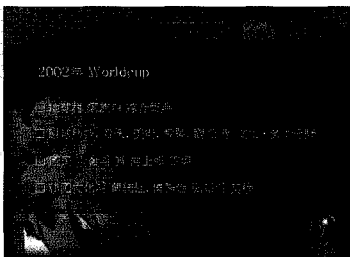
국가 또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월드컵구장 중심의 기반시설을 준비하는 것과 아울러 월드컵은 지구촌가족의 종합스포츠 축제로 축구경기는 물론 음악, 미술, 무용, 관광 등 문화·예술분야가 총망라된 종합축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월드컵대회를 통해 한국은 문화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전통문화 예술행사를 적극 개최하고 국제문화행사를 장려하여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350만명의 관람객은 단지 경기관람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며, 연 인원 430억명의 TV시청자를 위한 카메라렌즈도 경기장만 비추지 않을 것입니다. 월드컵 경기 관람객들은 한국의 뒷골목까지 다니며 한국의 인상을 머리에 새겨 갈 것이며 자기가 느낀

바대로 자국에 돌아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은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원시가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될 것을 계기로 화장실을 변화시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1) 수원시에서의 화장실문화운동

수원시는 서울에서 40여km 남쪽에 위치해 있는 인구 95만의 도시입니다. 수원은 예로부터 물산이 풍족하고 교통이 편리한 요충지로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광고산 아래로 수원천의 맑은 물이 흘러 선조들이 수원팔경을 노래하던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또한 민족사의 문예부흥기라 할 수 있는 18세기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효심이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에 서려있는 유서깊은 도시입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될 것을 계기로 세계의 우수한 문화관광도시에 뒤지지 않는 도시로



화장실 문화개선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세계인이 수원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화장실 공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1996년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997년 3월에 공중화장실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학문적 토대마련을 위해 1997년 한국에서는 최초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2회에 걸쳐 학술회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한·일 화장실포럼 2000을 개최하여 한·일 양국의 화장실문화운동이 상호협력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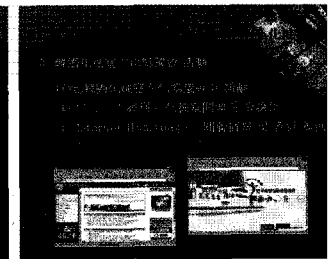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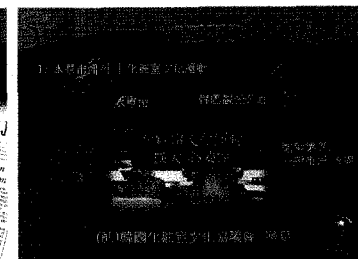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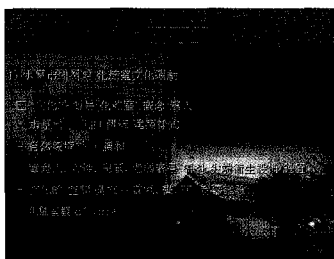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음식점등 일반영업소와 기업체등 다중이용 화장실을 대상으로 으뜸화장실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수원시의 문화 상징을 담고 있는 으뜸화장실 휘장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뿐 아니라 내외 관광객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대한 표지판을 공모하여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하였으며, 작년까지 수원의 관광지 및 유원지, 동산로 등에 반딧불이 화장실 등 16개의

아름다운 화장실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약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13개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문화가 있는 화장실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수원의 문화적 전통을 담아낼 수 있는 건축양식에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을 담았으며, 이제껏 도외시되었던 장애인, 여성, 노약자의 시설을 갖추었고, 첨단 위생설비시설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화장실에 향기, 그림, 꽃, 책꽂이와 음향시설을 하여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공간으로 꾸몄으며, 특히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계하여 화장실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은 1998년부터 국내·외 언론의 조명을 받아 MBC, KBS, SBS등 방송사와 중앙일보, 조선일보등 국내언론의 찬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력한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하여, 일본의 니시니혼 신문, 중국의 인민일보, LA타임즈, 이코노미스트등 세계의 주요 신문사와 CNN, 로이터통신, AP통신, 신화사, 이따르타스 통신 등을 통해 세계각국에 소개되어 새로운 화장실문화의 메카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수원을 방문한 싱가포르의 환경부



간부들은 수원의 화장실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아 자국의 화장실개선의 중요한 모델로 삼겠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여러 정책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수원시는 청결한 관광한국의 이미지 형성을 위해 전국적인 홍보 활동을 해 온 한국관광공사와 힘을 합쳐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 단체, 시민단체, 관련업계, 일반시민을 하나로 모아 화장실 문화 개선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9년 8월 한국화장실문화 협의회를 발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소개

잠시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의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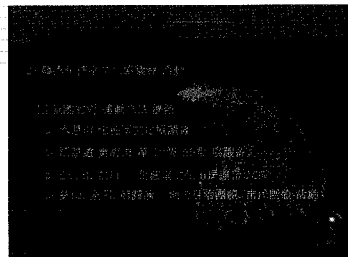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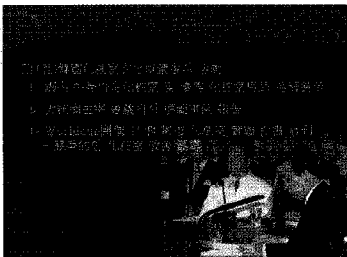
협의회는 우선 회지 '미소공'을 발간하여 회원은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공립 및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국회, 지방의회, 언론기관 등 여론선도기관, 대기업, 건설회사에 배포함으로써 화장실 문제의 공론화를 기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 및 자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의 아름다운 화장실사진과 우수한 화장실 용품을 전국에 순회 전시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여러 사업들을 통해 그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창립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7월에는 대통령님에게 모범사례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월드컵개최 10개 도시의 화장실 1,000곳을 조사하여 한국의 화장실 실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는 등 각 도시의 화장실 상태를 비교 발표함으로써 화장실 개선을 경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수원시 화장실문화협의회, 강원도 동해시를 시발로 18개 시·군 협의회의 결성, 서울과 인천의 화장실문화 시민연대의 결성 등으로 지역의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직이 결성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산, 전주, 서귀포 등 전국의 각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화장실 개선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흔히들 한국을 이야기할 때 '빨리빨리병'에 걸려 있다고들 합니다만 빨리빨리가 화장실을 개선하는 데에는 병이 아니라 좋은 약으로



새로운 화장실의 개념은 문화·복지·환경이라는 세가지 테마를 가진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국의 새로운 화장실 문화가 월드컵 경기로 인하여 전 세계에 알려질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새로운 화장실 개념

이제 화장실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문화·복지·환경이라는 세가지 테마를 가진 화장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제 단순한 생리적 배설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만 갖춘 시설이 아니라 위생적이고 인간의 또 다른 욕구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따로 시간과 돈을 들여 음악회를 가고, 미술관을 갈 수 있는 기회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하루에도 7~8회 많으면 10회 이상을 꼭 들러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문화를 듬뿍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 꽃과의 교감을 할 수 있고 향긋한 향기를 음미하며, 시와 그림, 음악을 감상하면서 신체의 묵은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공간,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장실이 거듭날 때

우리의 정서는 새로운 단계로 개발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여성, 어린이, 유아의 사용편의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인간의 기초적인 생리욕구,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제껏 장애인 화장실로만 사용되어 왔던 공간을 다목적 화장실로 개념을 바꾸어 어느 누구도 화장실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barrier-free', 'universal design', 'normalization'의 개념과 유사한 것입니다.

누구나 접근이 편리하도록 그리고 누구나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화장실에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말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한다는 의미이다」라는 장애인 단체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것은 시설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화장실에 다목적화장실 개념을 도입하여 유아동반 여성이나 노약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